

# 인천시, 호국보훈 임차보증금 지원 연장

인천시는 호국보훈대상자들과 그 자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에 시행한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2019년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최저1% 수준의 저리 정책 자금을 활용해 호국·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 영예로운 삶과 주거행복을 담보하기 위해 신한은행을 주관은행으로 2018년에 처음 시행했다.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2018년에 임차기간이 남아 신청이 어려웠던 보훈가족에게 저리 정책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호국·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가까운 신한은행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jj@



2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사랑상품권 판매 개시를 알리고 있다.

# 경기평택사랑상품권 20억원 발행

평택시, 농협서 10% 할인판매

평택시는 2일 관내 농협 52개 지점(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과수농협 등)에서 일제히 경기평택사랑상품권 판매에 들어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시무식을 마친 후 NH농협은행(평택시청출장소)에서 이종호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과 박경원 농협평택시지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을 구매, 상품권의 성공적인 유통을 기원했다.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로 5천원권 4만장, 1만원권 18만장 총 20억원이 조판 발행됐다.

발행기념 및 설 명절 기념으로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평택시는 상품권을 20억 소진 시까지 선착순 판매할 계획이다. 1인당 할인가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 연 360만원이고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

# 보해양조, 탄산주 '크링크바' 2종 中 진출

YG와 맞손... 中 노래방 체인 입점

보해양조는 YG와 손잡고 만든 탄산주 '크링크바' 2종(피스타치 소다, 캔디밤)이 중국 가족형 노래방 체인인 'HaoLeDi(하올러디)'에 입점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신년을 맞아 보해와 YG가 만든 크링크바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해는 물론 국내 주류 시장 전반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해양조와 YG가 함께 만든 크링크바가 최근 중국 노래방 체인 하올러디에 입점했다. 하올러디는 중국 20~30대 젊은

층으로부터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가족형 노래방 체인으로 한 점포당 300여개의 방이 있을 정도로 대규모 시설을 자랑한다. 이러한 시설을 바탕으로 상해를 비롯해 중국 전역에 빠르게 점포를 늘려가고 있다.

보해가 만든 크링크바가 이곳에 진출하면서 중국 내 매출이 증가할 것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출시된 크링크바는 베트남 등 해외에서 먼저 주목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베트남으로 1만 개가 수출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전남=봉태형 기자 bcy202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26

1월 3일 (木)  
음력 : 11월 28일

수도권 날씨  
-7 ~ -2℃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5/1, 동두천 -11/2, 가평 -13/2, 파주 -14/2, 서울 -7/2, 양평 -12/2, 수원 -7/2, 용인 -7/2, 평택 -11/3, 백령도 -2/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부산 수산업 재도약 적극 지원”

오거돈 부산시장, 초매식 참석  
“경쟁력 강화 위해 변화·혁신 필요  
‘시민위한 어시장’으로 바뀌어야”

오거돈 부산시장이 2일 부산의 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남북 수산분야 협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또 부산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시장은 이날 오전 국내 최대 연근해 수산물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열린 2019년 초매식에 참석해 “부산 수산업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수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오시장은 지난 한해 수산업계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수산업은 부산의 미래이며, 올해 부산 수산업 재도약의 기반을 보다 확실히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남북 수산분야 협력에 대한 포부와 근해어업 위기 극복 지원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시장은 대표이사 선출과행 등으로 지난해 부산공동어시장의 위판실적은 189천톤으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2017



오거돈 부산시장이 2일 열린 부산공동어시장 2019 초매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시

위생적인 위판시스템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공적 책임성을 다하는 ‘시민을 위한 어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수협과 수산업계 모두의 절대적 공감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공동어시장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명품 어시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시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부산공동어시장의 위판실적은 189천톤으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2017

년 대비 약 37% 증가하여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6시 한 해의 첫 경매를 알리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개회사와 축사, 참석 내빈들의 시범 경매와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교육감, 유기준 국회의원, 이현승 국회의원, 손재학 부산수산정책포럼 이사장 등이 참여해 공동어시장과 부산 수산업계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metroseoul.co.kr

# 경기도, 中 中 中 경영안정 위해 1.8조 투입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운용  
운전자금 8천억, 창업에 1조원

경기도는 기해년 새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규모를 연초부터 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해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2018년까지는 매년 1조 5000억 원 규모로 시작해 경제여건에 따라 자금규모를 조금씩 확대했으나, 올해부터는 내수 침체 및 미 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연초부터 확대지원을 결정했다.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000억 원, 창

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 원이며, 기금 대출 금리는 3.0%, 협조융자 이차보전은 평균 1.0%다. 올해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배정규모를 업체 당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 자금’ 항목을 신설해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창업초기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우선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올해 400억 원으로 4배 늘렸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반영,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양평·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년 30억 원 대비 2배 규모인 업체 당 최대 6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금 지원 평가 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게 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재해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재해피해 특별자금으로 50억 원을, 긴급 특별 경영안정 자금으로 400억 원 등 총 450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담양대나무축제’ 3년연속 최우수축제 선정

담양대나무축제가 ‘2019년 문화관광축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돼 명실상부한 친환경 축제로서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문화관광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심사해 인증하는 관광브랜드다.

담양대나무축제는 지난 2012년부터 5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2017년부터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며 대한민국의 대표 친환경 녹색축제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개최된 제20회 대나무축제에서는 담양 지명천년과 대나무축제 20주년을 맞이해 천년 담양의 역사와 함께한 대나무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대나무역사문화퍼레이드와 대나무축제 20주년 기념관을 운영했으며, 대나무어린이놀이터, 악기놀이터, 수확놀이터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프로그램



담양 대나무 뗏목 즐기는 관광객들. /담양군청

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한 건의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축제,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는 청결한 축제, 종사자 모두가 친절환 축제 로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나무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제21회 대나무축제에는 1억 7천만 원의 국비 지원과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홍보, 마케팅 등 간접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 완도 수목원 진입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

완도군은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이자 유일한 난대수목원인 완도수목원 진입로에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가로수길은 1.1km로 완도호랑가시나무 123주와 하층에 신엽이 아름다운 홍가시나무 16,000주가 식재되었으며, 수종 선정 단계부터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가로수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특히 완도호랑가시나무는 천리포수목원을 설립한 미국 출신의 민병갈 박사가 1978년 완도지역 식물 탐사 중 발견한 우리나라 고유 수종이다. 완도수목원 진입로 가로수길 조성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강한 황칠, 동백 등 난대수종을 주요 관광지, 해수욕장 등에 식재해 점진적으로 전 지역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이재현 기자 wando1106@